

은행

산업이슈

2024. 09. 03

가계대출 관리 강화 관련 코멘트

News

8월 대형은행 가계대출 +9.6조원 기록: 언론 보도에 따르면 5대 대형은행 합산 기준 8월 가계대출 잔액은 9.6조원 증가했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9조원을 기록했고, 신용대출 잔액은 +0.8조원을 기록했다.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확대되었고, 전월 감소세를 기록했던 신용대출도 반등했다. 5대 대형은행의 월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은행의 대출 관리 강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Com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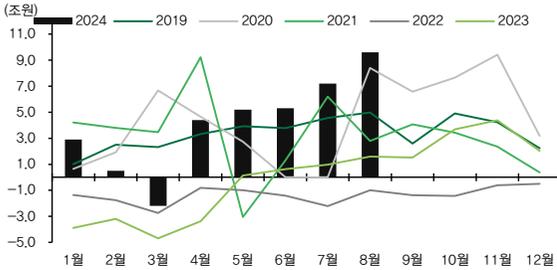
9월 중순 이후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 예상: 9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과 함께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발표되고 있는데, 가산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한도 축소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카카오뱅크는 1주택자 이상의 고객 대상 주담대 취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7~8월 은행들의 가계대출 관련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대출 신청일과 실제 집행일의 시차가 큰 주담대의 특성을 고려하면 9월 중순부터는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사례 참고 시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는 상당기간 지속 예상: 06년 가파르게 증가하던 가계대출은 07년부터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다. 이는 06년 11월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투기지역 아파트 담보대출 LTV 규제 강화 및 DTI 규제가 확대되었고, 이와 동시에 수도권 전역 주담대에 대해 사실상의 창구 지도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들이 각자 다른 방식으로 대출한도 축소를 진행하고 있어 과거의 사례와 차이는 있지만, 강력한 가계대출 관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기간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A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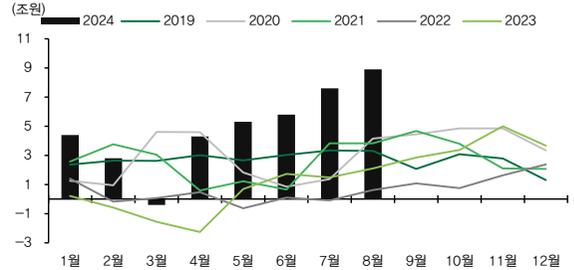
은행권, 기업대출 경쟁 심화 전망: 2025년 가계대출 성장률은 연초부터 둔화되고, 이에 따라 25년에도 기업대출 경쟁 심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던 07년에도 기업대출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은행권의 기업대출 금리 경쟁이 지속됨에 따라 은행 NIM에도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도표 1. 가계대출 순증 추이, 5대 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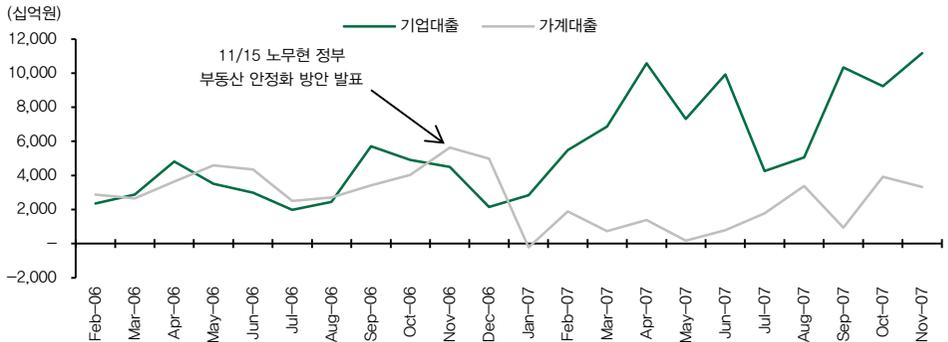
자료: 언론보도자료 종합, DB금융투자

도표 2. 주담대 순증 추이, 5대 은행



자료: 언론보도자료 종합, DB금융투자

도표 3. 가계를 누르자 기업대출 경쟁 격화



자료: 한국은행, DB금융투자
주: 06~07년 은행권 가계, 기업대출 월간 증가 규모 추이

Compliance Notice

- 자료 발간일 현재 본 자료를 작성한 조사분석담당자와 그 배우자는 해당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한 종목들의 PO 대표주관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 발간일 현재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법인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내용은 기관투자자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발행주식수 변동 시 목표주가와 괴리율은 수정주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였습니다.

1년간 투자이익 비율 (2024-07-01 기준) - 매수(93.4%) 중립(6.6%) 매도(0.0%)

기업 투자이익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Buy: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Hold: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perform: 초과 상승률 -10%p 미만

업종 투자이익은 향후 12개월간 당사 KOSPI 목표 대비 초과 상승률 기준임

- Ov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이상
- Neutral: 초과 상승률 -10~10%p
- Underweight: 초과 상승률 -10%p 미만